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2021년 5월 2호

◆ 주요 동향

1. 상하이 교통업계 및 항운계 디지털화 추진 “백서” 발표, 교통계의 신(新)경제 발전 도모
推动港航数字化升级 发展航运新经济
2. 창장경제벨트 수송선박의 육상전력 시스템 수전시설 설치 착수, 14.5 기간 말까지 사용율 100% 달성
长江经济带运输船舶岸电系统受电设施改造全面启动 到“十四五”末使用率达100%
3. 상하이해사국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 국제선박 등록 관리 규정」 발표
上海海事局关于印发《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 国际船舶登记管理规定》的通知
4. 중국, 「중국내 크루즈 전염병 상시 방역 및 통제 업무 지침(제3판)」 발표
《国内游轮常态化疫情防控工作指南(第三版)》解读
5. 클락슨: RCEP가 중국 해운교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克拉克森研究：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 对中国海运贸易的潜在影响
6.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 “나비효과”에 상하이항 작업량 폭증
苏伊士运河堵船“蝴蝶效应”显现 上海港忙“疯”了
7. 2020년 중국의 여객 및 화물 수운 수송량 및 항만 처리량
2020年交通运输行业发展统计公报
8. 산둥 칭다오항, COSCO AWE6 유럽·미주 팬들럼노선 개통
中远海运AWE6欧洲美东钟摆航线在山东港口青岛港上线 山东港口航线总数增至311条

*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기사를 번역한 내용임

◆ 기타 동향

9. 교통운수부, “항만 및 일선 인원들의 코로나19 방역업무 지침(제6판)” 발표
《港口及其一线人员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指南（第六版）》解读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LawsRule/Notice/202105/t20210525_1352927.shtml
10. 중점항로의 유지관리에서 BIM+GIS 응용 : 창장난징항로국, 드론으로 따치아오 구간 항공측량
BIM+GIS在重点航道维护管理中的应用探索——长江南京航道局开展大桥桥区航段无人机航测
<http://www.zgsyb.com/news.html?aid=591718>
11. 국내 첫 해상-철도 연계운송 자동화터미널인 베이부완항 자동화컨터미널 프로젝트용 설비 운송 중
国内首个海铁联运自动化码头项目设备发运
<http://www.zgsyb.com/news.html?aid=591530>
12. 2021년 전국 성시 교통공공장소 서비스 디지털화 업그레이드 액션플랜 발표
重点实施六大任务 打造全国交通数字变革高地 2021年全省交通公共场所服务数字化提升行动方案出炉
<http://www.zgsyb.com/news.html?aid=591290>
13. 난징해사법원, 제1차 5개년 발전계획 요강을 발표하여 국제해사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방안” 마련
南京海事法院发布首个五年发展规划纲要 为化解国际海事纠纷提供“中国方案”
<http://www.zgsyb.com/news.html?aid=591800>
14. 징둥물류, 홍콩거래소 상장, 241억 홍콩달러의 공모자금은 일체화 공급사슬망 구축에 사용 예정
京东物流于港交所主板上市，募资241亿港元用于布局一体化供应链
<https://www.headscm.com/Fingertip/detail/id/20929.html>

작성자 : 장원형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육천연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상하이 교통업계 및 항운계 디지털화 추진 “백서” 발표, 교통계의 신(新)경제 발전 도모

■ 최근 상하이시 교통위원회와 시 도로운수관리국은 “상하이 교통산업 디지털화 전환 실시 의견(2021-2023)” (이하 “의견”)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는 상하이시 최초의 디지털화 전환 관련 백서임

- “의견”에서는 상하이시 교통산업의 디지털화 전환 3대 과제와 60개의 프로젝트 리스트를 공개했고, 프로젝트에는 해운항만 디지털화 업그레이드 및 자동화 설비 구축, 스마트 궤도 건설, 자율주행, 스마트 해운항만,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가 포함됨
- 향후 2년간 상하이시 교통산업은 디지털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며, 고품질 이동서비스와 고효율 물류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이고 폭넓은 시범구역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의견”에 제시된 디지털화 방안 요약

-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통합 추진체제를 모색하여 ‘MaaS’ 건설
- 교통카드의 창장삼각주 지역 및 전국의 네트워크 상호 활용 추진, ETC 응용 영역 확대
- 개인의 외출과 관련된 주차, 콜택시 앱 등 생활교통의 디지털화 확대
-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해운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블록체인과 실물경제를 융합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터미널을 자동화 터미널로 개조하고, 스마트화 운영, 설비의 원격 조정 등 종합적인 업그레이드 추진
- 양산항 화물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사물인터넷기술을 응용하여 항만시설의 기술 혁신 도모
- 컨테이너의 강-해상 연계운송 공공정보 플랫폼 건설 추진
- 창장 입구의 항로 디지털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내하 고등급 항로 관리의 디지털화 모색
- 항로표지 건설과 유지보수, 항만의 항로 측량 및 수상안전 통신의 스마트화 수준 제고
- 스마트항해 디지털 서비스 수준 제고
- 첨단 해상디지털 통신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해상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디지털 개방 서비스 플랫폼 등 기초인프라 건설 추진
- “스마트 해운” 시범 응용을 장려하여, 해운무역의 빅 순환 촉진
- 양산항 스마트 트럭 시범 운영을 중점으로 자율주행 핵심 기술력 제고
- 적극적으로 스마트 선박 기술의 응용을 보급하고, 항만, 항로, 갑문 등 기초시설과 스마트 선박의 자율항행, 자동화 하역 연동 능력 제고

(中国水运报, 2021. 5. 17.)

<http://www.zgsyb.com/news.html?aid=590677>

(交通运输部, 2021. 5. 18.)

https://www.mot.gov.cn/jiaotongyaowen/202105/t20210518_3593699.html?from=timeline

창장경제벨트 선박 육상전력 수전시설 개조사업 착수, ‘14·5’ 기간 말까지 사용율 100% 달성

- 2021년 5월 19일, 교통운수부 창장항무관리국(약칭 “창항국”)이 주최한 “창장경제벨트 선박 육상전력시스템 수전시설 개조” 화상회의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국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창장경제벨트 11개 성시에 선적 을 둔 600GT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육상전력 수전시설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프로젝트는 창장 간선 부두의 육상전력 시설 건설과 개보수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선박의 정박시 육상 전력 사용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함
 - 2020년 말까지 창장경제벨트 11개 성시 항만과 수상서비스구역에서 사용된 육상전력은 총 23만 차, 231만 시간이며 약 5,000만 kWh에 달해 2019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남
- 이번 수전시설 개조 프로젝트는 내하 수송선과 창장에 진입하는 중국적 국내수송 해선 및 특정 항로의 강·해상 직송선을 대상으로 하며, 선종은 컨테이너선, Ro-Ro선, 벌크 액체 위험화물 수송선박을 제외한 600GT 이상 벌크선 및 다용도선 등 총 2만 6,000여 척이 포함됨
 - 개조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으로, 2023년까지는 내하 컨테이너선, Ro-Ro선과 1,200GT 이상의 내하 벌크선과 다용도선, 2025년까지는 600GT 이상의 내하 벌크선과 다용도선을 대상으로 수전시설 개조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창장경제벨트 녹색발전 중앙정부 예산 자금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업 총 투자액 60% 이내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국가개발위는 교통운수부와 함께 기술방안과 지원금액을 발표하고 교통운수부 및 관련 기관, 각 지방 정부와 함께 우대혜택 및 보조금 정책을 내놓을 예정임
 - 또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육상전력 사용료 보조금 정책을 마련토록 하여 선박의 육상전력 사용원가가 기존의 연료사용 발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임
 - 창항국은 앞으로 창장경제벨트 11개 성시에 올해 보조금 신청을 받아 2021년 중점 개조작업에 착수 할 계획임

(中国港口集装箱网, 2021. 5. 22.)

<http://www.chinaports.com/portlspnews/7952>

상하이해사국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 국제선박 등록 관리 규정」 발표

■ 상하이해사국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 총체 방안」의 요구 사항에 따라 「중국(상하이)자유 무역시험구 린강신구 국제선박 등록 관리 규정」(이하 「규정」으로 약칭)을 2021년 5월 20일부터 2025년 5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함

- 상하이해사국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의 해운요소 집적능력 제고, 편리하고 고효율의 국제선박등록 실시 및 국제 일류 해사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선박등록조례」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 총체방안」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함

■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 규정은 린강신구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나용선 형태로 임대한 국제노선 및 홍콩, 마카오, 대만 노선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양산항에 기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선박에 적용하되, 유람 선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선박등록 신청시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되, 원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과 일치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신청자는 선박등록 신청 시 선박에 대한 최소 안전 인력 증명서 발급, 난파선 제거 책임 보험 또는 기타 재정 보증서 발급, 선박의 유류 유출에 따른 민사책임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발급 등 해사업무를 함께 신청할 수 있음
- 린강신구에 등록된 국제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사국이 권한을 부여한 선박검사기관에 의해 법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기타 관련 국가 규칙에 근거해 외국 국적의 선원을 고용할 수 있음
- 또한 린강신구에 등록된 국제선박 중 요건에 부합되는 선박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정책과 양산특별종합보세구역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음

(中华航运, 2021. 5. 20.)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LawsRule/Notice/202105/t20210520_1352815.shtml

중국, 「중국내 크루즈 전염병 상시 방역 및 통제 업무 지침(제3판)」 발표

■ 수정 배경

- 2021년 1월 6일 「국내 크루즈 전염병 상시 방역 및 통제 업무 지침(제2판)」이 발행된 이후 중국 내 크루즈 코로나19 방역 및 통제, 안전 생산 및 운송 서비스 보장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
- 한편, 중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및 통제를 상시화하면서 국내 크루즈 운항이 대부분 재개됨
-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신규 방역 요구 사항과 창장 크루즈 응급처리 사례를 결합해 크루즈 선원 및 승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크루즈 운영 안전 강화, 응급처리 강화 등을 포함하여 「지침(제2판)」을 수정함

■ 주요 수정 내용

- 첫째, 크루즈 선원 및 승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크루즈선사는 현지 교통 및 보건 부서와의 접촉을 강화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상 이유 외에 모든 선원과 승무원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함
- 둘째, 크루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크루즈선사는 홍수, 여름, 태풍 등 특수 기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관련 관리 부문은 크루즈 운영 안전을 보다 중시해야 하며, 해사 관리 기구와 크루즈 운영 안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 또한 기업이 안전 생산 주요 책임과 제도를 엄격히 이행하고, 여객선에 운항, 묘박, 통항 등 안전관리 요구를 엄격히 집행하여 크루즈의 수송 안전을 확보할 것을 촉구함
- 셋째, 발열 관광객에 대한 응급처리 최적화. 크루즈 정박시 또는 발열 인력 이동시 다른 크루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확산 위험을 엄격히 통제해야 함
- 넷째, 선상 방호시설의 배치 강화. 탑승구에서 무제한 소독제를 제공해야 하며, 관광객 및 선원이 사용한 마스크 및 일회용 장갑 등을 수거하는 시설을 일정량 설치해야 함
- 다섯째, 밀접접촉자 판정 강화. 국가 최신판 「코로나19 방역 및 통제 방안」의 '교통수단 밀접접촉자 판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확한 밀접접촉자를 판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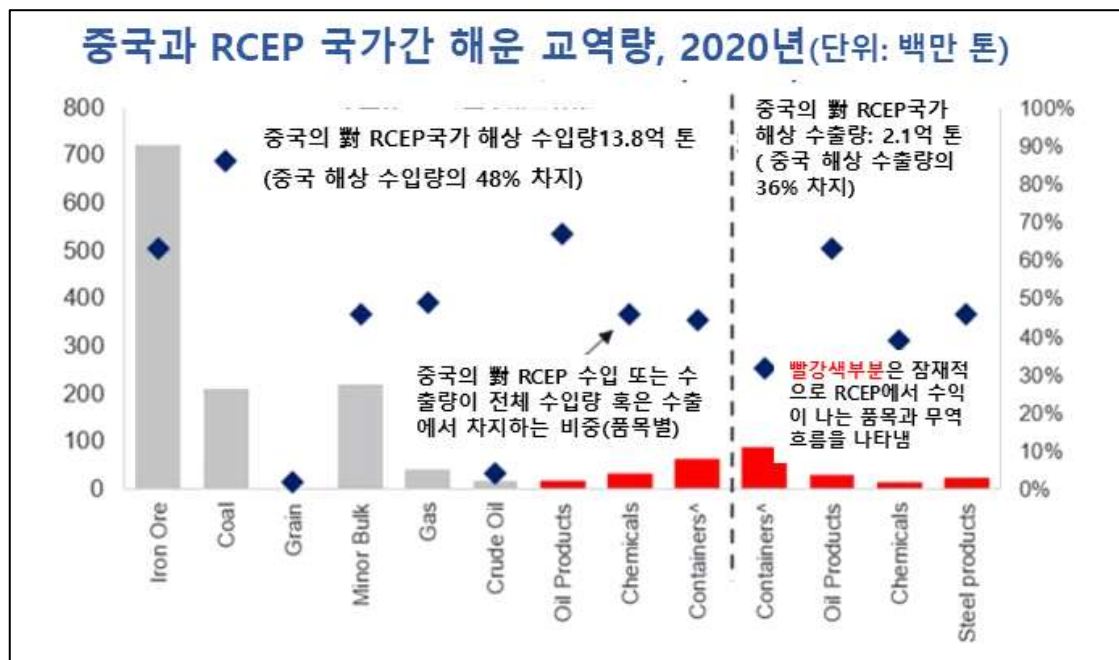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1. 5. 21.)

http://www.gov.cn/zhengce/2021-05/21/content_5609864.htm

클락슨: RCEP가 중국 해운교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RCEP 협정 체결로 인해 상품 관세율이 보다 낮아지게 되며, 표준화된 '누적 원산지 규정'은 중국의 대 아시아 해상 수출을 잠재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중국의 대RCEP 국가 해상 수출량은 중국 전체 해상 수출량의 36%를 차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컨테이너 화물, 마이너 벌크, 정제유 및 화학품으로 이러한 품목들은 향후 수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임
- 반면, 중국의 대RCEP 국가간 수입은 이미 매우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RCEP 협정이 중국의 해상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 상품에 대해 이미 무관세 또는 제한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20년 중국의 대RCEP 국가 해상 수입량은 중국 전체 해상 수입량의 48%를 차지했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철광석, 석탄, 마이너 벌크 상품임
- 향후 일부 석유 화학공업품 및 공업품의 수입은 RCEP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출처: Clarkson Research

[RCEP가 중국 해운무역 흐름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품목	중국의 대RCEP 국가 수입함	중국의 대RCEP 국가 수출
벌크	영향은 매우 제한적. 철광석과 석탄이 수입의 대부분 차지. 호주,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국가에 대해 이미 무관세 실시. 곡물에 대한 수입 관세는 변동 없음	-

마이너 벌크	중국이 이미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했기 때문에 금속과 광석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임. 한일 프리미엄 강재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수입 증가.	강재, 공업 반제품, 아세안 국가 등 신흥시장으로의 화학 비료 등은 잠재적으로 수출 증가
컨테이너	한일제조업의 반제품(전자, 기계 부품) 등 성장예상	-
석유&화학품	원유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이미 무관세 실시)은 없음. 프리미엄 정제유, 화학공업품(기초유, 윤활유, 프리미엄 화학품)은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한일로부터의 수입 증가 예상.	정제유, 화학공업품의 수출 증가 예상
액화가스	주요 무역국에 대해 이미 무관세를 실시했기 때문에 영향 제한적	

출처: Clarkson Research

(克拉克森研究CRSL, 2021. 5. 20.)

<https://mp.weixin.qq.com/s/dlCedqtQHrktu80IZUULxw>

에버그린호 좌초 사고 “나비효과”에 상하이항 작업량 폭증

- 2021년 3월 23일 발생한 수에즈운하 에버그린호 좌초 사고의 영향이 전 세계에 나비효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월 들어 수백 척의 대형 원양선이 잇달아 목적항에 도착하면서 상하이항에서 심각한 체선이 발생하고 있음
 - 상하이 양산항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성동(盛东) 터미널(3km)에 다수의 선박이 동시에 정박해 있고 보다 많은 선박들이 동해 해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임
 - 양산항 1기 및 2기 터미널 운영사인 성동터미널 외 양산항 기타 터미널의 모든 선석 또한 마찬가지로 연일 풀가동 상태에 돌입함
-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대부분 유럽노선은 성동 터미널과 연계되며, 이에 따라 성동 터미널은 양산항에서 유럽노선 운항 선박의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시 적체되었던 선박들이 이곳에 한꺼번에 몰리며 부두 작업량이 급증함
 - 기존에 선박 한 척당 36시간 정도 걸리던 하역작업을 최근에는 24시간으로 단축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 접안시간 단축은 터미널의 작업 효율성 개선을 통해 가능한 것이나, 현재 성동터미널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지휘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양산항 4기 완전자동화 터미널인 상동(尚东) 터미널에서는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고, 자동화 하역, 선적, 화물검사 등 통관효율을 높이며 단축된 정박시간에 업무효율을 최대화하고 있음
- 양산항 내 기항 노선 조정을 통해 기존에 양산항 기타 터미널에 기항했던 유럽노선 선박을 양산항 4기 터미널로 전배한 결과 최근 상동터미널에는 거의 매일 4척의 선박이 동시 접안하여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21년 4월 양산항 입출항 선박은 약 710척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2% 늘어났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190만 TEU로 지난해 동기대비 20% 늘어남
 - 5월에도 대형 선박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으며 일 평균 20척 가량이 양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음
 - 양산항출입국변방검사소 측은 국제항행선박에 대해 온라인 예비 검사와 행정 처리를 진행하여 입항하자마자 하역작업을 실시하게 한다고 밝힘

(搜航, 2021. 5. 20.)

https://www.sofreight.com/news_53353.html

2020년 중국의 여객 및 화물 수운 수송량 및 항만 처리량

■ 2021년 5월 19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2020년 교통운송산업 발전 통계공보(2020年交通运输行业发展统计公报)’를 발표함

■ ‘통계공보’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수운 여객 수송량은 1.5억 명으로 전년 대비 45.2% 크게 감소함

- 전국 항만의 여객 이용자수는 4,418.8만 명으로 전년 대비 49.3% 감소했으며, 이 중 내하 항만은 전년 대비 85.3% 감소한 74.6만 명, 연해 항만은 전년 대비 47.1% 감소한 4,344.2만 명을 기록했음

■ 한편, 2020년 중국의 화물 수운 수송량은 76.16억 톤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내하 화물 수송량은 38.15억 톤, 해상 화물 수송량은 38.01억 톤을 기록함

■ 또한 2020년 중국 항만의 화물 처리량은 145.5억 톤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내하 항만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50.7억 톤, 연해 항만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94.8억 톤의 화물을 처리했으며, 컨테이너 철도-수운 연계 수송량은 687만 TEU로 전년 대비 29.6% 증가했음

[2020년 중국 항만의 화물 처리 현황]

품 목			단 위	누 적	전년 대비 증가율
화물 처리량	국제		억	44.96	4.0
	국내		억	100.54	4.4
화종별 처리량	석탄 및 그제품		억	25.56	-2.7
	석유, 천연가스 및 그제품		억	13.10	7.9
	금속광석		억	23.41	5.5
	컨테이너	합계	억 TEU	2.64	1.2
		내하	억 TEU	0.30	-0.5
		연해	억 TEU	2.34	1.5

(交通运输部, 2021. 5. 19.)

https://xxgk.mot.gov.cn/2020/jigou/zhghs/202105/t20210517_3593412.html

COSCO Shipping, 칭다오항에 유럽-미주 펜듈럼 서비스 개통

- 2021년 5월 18일, 선장 350m의 COSCO 그리스호가 칭다오항 자동화 터미널 108번 선석을 출항함에 따라 칭다오항에 유럽-미주 펜듈럼 노선(AWE6)이 정식 개통됨
 - 이번 AWE6 노선의 개통으로 칭다오항은 자동화 터미널은 운영 네트워크를 더 보완하게 되었으며, 3대 얼라이언스가 기항하는 항만으로 부상함
 - 산둥항만은 2021년에만 현재까지 10개의 항로를 신설하여 총 311개의 국제항로가 있으며, 이번 노선의 개통으로 산둥항과 유럽, 지중해 및 미국 동부를 잇는 노선이 증가하게 됨
 - COSCO 그리스호는 2018년 4월 21일 이미 칭다오항 자동화 터미널에 기항하여 시간당 컨테이너 42.9박스를 처리하며 세계기록을 세운 바 있음
- 산둥항만그룹은 2019년 설립된 이래 칭다오항을 선도로 통합개혁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컨테이너 노선 증대, 터미널 효율 제고 등을 통한 종합 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임
 - 특히, 칭다오항을 허브로 르자오항, 옌타이항, 보하이만항이 각 권역을 둘러싸고 있는 컨테이너 간선 운송네트워크 구도를 구축함
 - 2020년 칭다오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201만 TEU로 전년 대비 4.7% 성장하여 부산항을 제치고 동북아 1위를 차지했으며, 신설된 20개 항로 중 대외무역 노선은 14개임
 -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과 '145' 계획이 시작되는 첫해를 맞아 산둥항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컨테이너 고품질발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항만의 운영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음
 - 산둥항은 관련 정부기관과 CIQ, 해사, 협력업체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국제 산업사슬 공급망을 재구성하는데 힘쓰고, 칭다오항을 필두로 동북아 국제해운허브센터를 구축할 것이며 산업사슬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계획임

(中国水运报, 2021. 5. 19.)

<http://www.zgsyb.com/news.html?aid=590934>